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생활 그대로 진리일 수 있게

생활시도(生活是道) 라는 말이 있다. 우리네의 일상생활 그대로가 드러나 있는 진리라는 뜻 일게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뜻도 생활 주변에서 밉고 곱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그대로가 진리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일터. 다만 여기서 방점을 찍어 살필 일은 머물되 머묾에 집착 않는 무주상(無住相)의 교훈이 실천적으로 하나를 이룰 때 생활이 도(道)요, 평상심이 진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앓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병의 원인은 대개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모으고 당기며 쌓아두려는 소유욕이 걱정 근심을 키우며 재앙의 씨앗이 된다.

내가 이럴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이해와 섭수의 포용력은 다툼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에 이르게 한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과 원망의 불길이 용서와 이해로 잦아들 수 있는 것이다.

일이다. 막힌 곳은 뚫어 주고 맺힌 곳은 풀어주며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마음 덮여주며 군불 지펴주며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의 지혜자가 되어야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간다. 종교에 접근하고 신앙에 발돋움 하는 것도 보다 나은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잘못 선택한 종교와 바르지 못한 신앙 행위로 인하여 재산 잃고 명예 잃고 삶의 길이를 줄이는 어리석은 행위는 주변에 널려 있다.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날이 갈수록 그 시야를 넓혀야 한다. 마음의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일궈야한다.

생각이 바뀌므로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므로 세상이 열리는 믿음의 생명력을 키워가야 한다.

하여, 나무로 만든 목불(木佛)과 돌로 만든 석불(石佛)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몇 백년 된 나무의 창창한 모습에서 건강한 자연 부처의 모습을, 바위의 늠름한 형상에서 믿음의 천연부처를 발견하는 마음의 눈높이를 넓혀야 한다.

나눔과 베품을 생활 속서 실천하길
주위가 행복하도록 자신을 바꿔라

내 것이어야 하고 내 편이어야 하고 나의 소유여야 한다며 나를 중심으로 한 아집(我執)의 편애증상은 화(禍)를 키우고 재앙을 불러들인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의 기능만 삭아 내리는 게 아니다. 마음도 서늘하게 용기와 의욕을 멀리한 채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마음의 실타래가 다 풀리기 전에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회향이 있어야 한다. 가진 것은 나누고 베풀며 생활의 언어로 실천해야 한다.

이해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애어보시(愛語布施)'를 일상의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기도, 미안해하는 눈인사는 하면 할수록 아름답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고된 그림자만 남긴 채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야할 우리네 삶의 종착역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미련도 후회도 뱀의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두어 방울의 눈물방울 남기며 한바탕 잘 놀다 간다며 엷은 미소 남길 수 있게 개운한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법당과 기도 도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초가삼간의 초라한 집이, 아파트의 주거공간이 최고의 법당이요 기도드리는 도량임을 알게 될 터이다.

내가 극진히 모시고 경배드릴 분은 법당의 부처님보다 나의 부모요 반려자이며 아이들의 가족임을 깨닫게 될 터이다.

이것이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주지삼보(住持三寶)에서 별상삼보(別相三寶)로, 더 나아가 동체삼보(同體三寶)로 신앙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이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식도 좋겠지만 우선은 가정이 평화롭도록 가족이 행복하도록 내 자신이 생각 바꿔 마음 열고 살 일이다. 평상심이 도(道)가 될 수 있게, 생활이 그대로 진리가 될 수 있게.

木佛을 태우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단하천연(丹霞天然:739~824) 선사는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러 장안으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불법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포기하고 출가를 하였다고 알려진 스님이다.

처음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를 친견하고는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를 찾아가 3년의 지도를 받은 뒤 다시 마조 선사 문하로 돌아와 공부하였다.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 불상의 목에 걸터앉았다. 이상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중이 깜짝 놀라 마조 선사에게 고했다. 마조 선사가 법당에 들어가 보고 "참으로 천연스럽구나!"하였다. 이 말에 단하 선사가 내려와 절을 하고 "스님께서 주신 호(號)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천연(天然)이란 법호를 쓰게 되었다.

그는 제방을 찾아다니며 여러 선지식들과 교류했다. 한 번은 낙양의 혜림사에 가 머물게 되었다.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이었다.

그는 밤이 되어 취침을 위해 아궁이 불을 때려고 했으나 장작이 없었다. 그는 땔감을 못 찾아 법당에 들어가 목불을 안고 나와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때버렸다. 다음 날 아침 법당에 불상이 없어진 것을 안 원주(院主) 스님이 아궁이에 불 땐 흔적을 보고 목불을 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주 스님은 단하 선사를 사정없이 꾸짖었다.

"세상에. 목불을 쪼개 불을 지피다니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게 아니군."

단하 선사는 태연히 말했다. "난 부처를 태운 게 아니오. 부처를 태웠다면 사리가 나와야 하지 않소."

"목불에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오."

"사리가 안 나온다면 나머지 목불도 태워버려야 하겠군."

이런 말이 오고간 다음 원주 스님의 눈썹과 수염이 그만 빠져버렸다고 한다. 이상의 이야기는 〈오등회원(五燈會元)〉 5권 '단하천연장'에 소개된 이야기이다. 이후 이 이야기는 '단하소불(丹霞燒佛)'이란 공안(公案)으로 채택되어 널리 유행되었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목불을 땠다는 이야기는 높고 뛰어난 안목에서 나온 것이다. 원주 스님이 그것을 보고 꾸짖은 것은 대반야의 도리를 비방한 것이므로 눈썹과 수염이 빠진 것이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 곳도 있다.

"'원주 스님이 날씨가 추운데도 단하 선사에게 땔거리를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단하 선사로 하여금 목불을 태우게 만들고 마침내 눈썹과 수염이 빠지게 되었다' 라고들 하지만 그러나 원주는 쇠를 팔아서 황금을 얻고 일장의 부귀를 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한 것이라 하겠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또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의 설법이 소개되어 있다.

"진정극문이 법좌에 올라 단하가 목불을 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갑자기 주장자를 잡고 '이것이 목불이다' 하고 주장자를 던지며 말했다. '누가 태워 보겠는가. 그대들이 분별하여 머뭇거리면 눈썹과 수염이 빠진다.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소리를 높여 행자야! 주장자를 다시 집어 들어라 ' 하고는 법좌에서 내려왔다."

이 외에도 단하 선사에게는 공안을 이룬 일화들이 몇 개 더 있다. 단하 선사가 남양혜충(南陽慧忠) 국사를 찾아갔을 때의 일화다. 시자에게 국사가 계시느냐고 물었다. 시자가 대답하기를 "계시기는 계시지만 손님을 만나보지 않습니다." 단하 선사가 말했다. "너무나 깊고 멀리 계시는구나!"

시자가 이어 "부처님의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단하 선사가 다시 "용은, 용의 새끼를 낳고 봉황은 봉황의 새끼를 낳는구나!" 하였다.

혜충 국사가 낮잠에서 깨어나자 시자가 단하 선사가 찾아와 있었던 일은 국사에게 말하였다. 국사는 시자를 스무 방망이나 때려서 내쫓았다. 나중에 단하 선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남양국사라는 존칭을 받을 만 하구나' 하였다.

상이 없는 것이 바른 상이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⑳ 일상무상분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 能作是念 我得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수보리 어의운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수다원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何以故 須陀洹 名爲入流 而無所入 不入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
(하이고 수다원 명위입류 이무소입 불입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 수보리 어)
意云何. 斯陀含 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 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의운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사다함과 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斯陀含 名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 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 能作是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 사다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나함 능작시)
念 我得阿那含果 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阿那含 名爲不來 而實無
(념 아득아나함과 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불래 이실무)
不來 是故 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 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不.
(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라한 능작시념 아득아라한도 부)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實無有法 名阿羅漢. 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약아라한작시념 아)
得阿羅漢道 卽爲着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三昧人中 最爲 第一 是
(득아라한도 즉위착아인중생수자. 세존 불설아득무쟁삼매인중 최위 제일 시)
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 我得阿
(제일이욕아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욕아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아)
羅漢道 世尊 卽不說 須菩提 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實無所行 而名須菩提
(라한도 세존 즉불설 수보리 시요아란나행자. 이수보리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수다원은 범어(梵語)이며 한자로는 거슬러 흐름(逆流)으로 중생의 생사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서, 6근과 6진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고 일심으로 분별망념을 여의어서, 거칠고 무거운 망념의 세계인 축생, 아귀, 지옥의 몸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의 흐름(聖流)에 들어갔다 함은, 수다원은 무색계의 공무변처정과 보살 10지 가운데 초지의 환희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망념을 여의고 성인에 들어간 것은 수다원이 아니고 이 마음이 성인의 경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다원이므로 수다원이 아니고 수다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수다원이 아닌 것이 진공(眞空)이고, 수다원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묘유(妙有)이며, 이 묘유는 수다원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마음의 별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一往來)는 것으로 실은 가고 오는 것이 없는 것은 이름이 사다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다함은 한역(漢譯)으로 일왕래(一往來)이며 한번 갔다 온다는 뜻으로, 인간 세상에서 죽은 후에 천상에 태여 나고 천상에서부터 다시 인간 세상에 태여 나서 마침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므로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모든 경계를 볼 때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 한번 멸하는 것이 있으나, 제2의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일왕래입니다.

앞생각이 분별망념을 일으키나 뒷생각이 곧 그치며 앞생각은 있지만 뒷생각을 곧 여의기 때문에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그러나 가(往)는 것은 오(來)는 것으로 인하고, 오는 것은 가는 것으로 인하므로, 가는 것과 오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추명사 를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괘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 강의 및 감정요일 ◀
대구 : 월, 화, 수
(오전 10시 부터 ~ 오후 3시까지 방문요망)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12길 30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0-9217-2237